

이재명 “부동산 개혁” 국힘, 경선 흥행몰이

뉴스현장 - 여야 대선 분위기 고조

심상정·안철수·김동연 등
완주 각오 속 존재감 부각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로 초반 기세 잡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에선 경선 흥행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단일화 및 연정 가능성 등을 일축하며 완주 의사와 함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 4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일 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대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선대위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가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를 겨냥해 “부패세력들이 왜 공공개발을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주장을 하고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부당한 공격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면 돌파하는 한편,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정책 이슈 선점 등을 통해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선 흥행에 고무된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투표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1.46%

(전체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누적 투표자 수 34만9762명)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일 모바일 투표와 이날 시작한 ARS 전화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 ARS 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이 대상이며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당원 투표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6·11 전 당대회 당시의 당원 투표율 45.36%를 일찌감치 훌쩍 뛰어넘으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결과와 3~4일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경선 흥행으로 대선 경쟁의 초반 승기를 잡아가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권 교체 분위기가 고조, 경선 과정의 갈등도 녹아들면서 대선 후보 선출이 촉제의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대답하겠다. 자신 없는 분은 링에서 내려가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최소한 3자 박빙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며 심상정으로 정권교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선 전 야권 통합론’에 대해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협상은 이미 결렬됐고 이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남북이 안 되는 것도 있다”면서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이 5% 내외의 초박빙 양상을 띠 가능성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각 진영간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산발적 감염 계속 ... 최고 백신은 ‘마스크’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대다수는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됐으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만큼이나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시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12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5417명이다. 확진자 중 6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 검사자다. 광산구 소재 중학생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확진자도 2명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6시 기준 12명이 확진돼 전남 3617-3628번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담양 3명, 고흥·영암·화순 각 2명, 목포·무안·진도 각 1명이다. 고흥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모두 75명이 미역작업장과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됐다. 확진자 절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다고 전남도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메타세콰이아 호수의 가을 이야기

안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담양 메타세콰이아길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생태 시민호텔’ 되나

민관정위원회, 활용방안 중간 보고

‘시티타워’ 건립 등

랜드마크 조성 목소리 여전

무등산 난개발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위원회가 논의 끝에 호텔건물을 보존하고, ‘생태 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광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광주만의 상징성을 담은 ‘시티타워’ 건립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광주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민관정 위원회는 3일 오후 옛 신양파크호텔 현장에서 대시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공유화 3대 원칙을 밝혔다.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 무등산권 생태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 구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이다. 허민 민관정위원장은 “무등산 보존을 위한 민·관·정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유화 3대 원칙과 신양파크 호텔 및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호텔 부지와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생태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호텔 건축물

은 보존하되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 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2층은 문화·정보 교류가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위원회 제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민관정위원회의 의견처럼 생태 시민호텔과 다목적 복합공간 등을 구성하더라도, 특정 민간단체 등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양파크호텔 활용방안과 관련해 자연생태계 그대로 원상복구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목소리부터 민간 주도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방식의 보존·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에 매입해 영구 보존·관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방식은 민간 주도의 관리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

에서, 자칫 특정 민간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관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만약 특정단체가 무등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신양파크호텔을 운영·관리하는 구조가 된다면, 앞으로 매년 고정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상당액의 시민 세금만 투입되고 시민의 외면을 받은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면서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수익 창출 방안과 특정단체의 사유화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관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지역 내에선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광주를 상징하고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시티타워’나 무등산 케이블카 건립 등을 제안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મ비하 더 이상 안 된다. 강력 처벌해야 ▶6면

진화하는 AI 페퍼스, 첫 승 머지 않았다 ▶18면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 이이남 작가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